

◇식도제건술시 흉강경용 기계문합기를 이용한 경부식도-장문합술

김일현, 김광택, 이승암, 이승열, 이인성, 김형묵, 김학제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흉부외과학교실

배경 및 목적 : 식도질환에 있어 식도절제후 식도재건술시 자동기계문합기의 사용은 수봉합에 비해 문합부 누공발생률이 낮아 안전하고, 수술시간이 단축되어 현재 보편화된 술기에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. 그러나 기존의 원형기계문합기는 수봉합에 비해 수술후 문합부위의 누공발생률은 적으나, 협착 및 음식물 섭취시 연하곤란증이 많이 나타나서 환자가 불편을 느끼고 자주 이차적 치료를 요하게 된다. 이러한 수술후 합병증은 문합부위의 식도내경의 크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다. 저자들은 더 넓은 문합부위에 내경을 얻기 위하여 원형기계문합기[EEA]와 흉강경용 기계문합기[endoGIA]를 사용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

방법 : 1995년 8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자동 기계문합기를 이용하여 식도제건술을 시행한 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형기계문합기[EEA 25mm 20례]와 흉강경용 기계문합기[endoGIA 30mm 14례, endoGIA 45mm 24례]를 사용하여 경부식도-장 문합술을 시행한 후 환자의 증상 및 식도조영술을 이용하여 문합부위에 협착발생률과 음식물섭취시 연하곤란 발생빈도를 조사하였다. 외래추적조사는 평균 12개월이었다.

결과 : 흉강경용 기계문합기를 이용함으로써 원형기계문합기에 비해 문합부위에 식도내경을 1.2배에서 4배가량 얻을 수 있었다. 수술직후 문합부위의 협착은 원형기계문합기사용의 경우 2례[10%]에서 발생하였으며 흉강경용 기계문합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. 수술후 음식물 섭취시 연하곤란증은 원형기계문합기사용의 경우 8례[40%]에서 발생하였으며 흉강경용 기계문합기에서는 endoGIA 30mm에서 1례[7%], endoGIA 45mm에서 2례[8%] 발생하여 통계학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[p=0.03].

결론 : 경부식도-장 문합술시 흉강경용 기계문합기의 사용은 기존의 원형기계문합기사용에 비해 쉽게 더 넓은 문합부위의 식도내경을 얻을 수 있었으며, 이로 인해 중요한 합병증인 수술후 문합부위 협착이나 연하곤란증의 발생빈도를 줄일 수 있어 좀더 우수한 술식이라고 사료된다.

책임저자: 김광택(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흉부외과학교실)
발표자: 김일현(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흉부외과학교실)